

# 행복 쪽지

줄리언 테니 도먼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일리는 고개를 들어 새로운 선생님을 보며 웃음을 지었어요. 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보다 젊어 보이셨어요. 선생님은 말씀하시는 도중에 목소리가 갈라지셨지만, 곧 목을 가다듬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는 베렛 선생님이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새로 오신 건가요?”

“맞아요. 올해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여러분이 저의 첫 학생들이예요.”

베렛 선생님은 이어서 앞으로 이 반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라일리 뒤에서 다른 아이들이 속삭거리며 떠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렛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더 듣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라일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베렛 선생님과 눈이 마주칠 때는 웃음을 지어 드렸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엄마는 라일리가 등교 첫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으셨어요.

“반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아요. 이번에 처음 오신 선생님도 계세요. 선생님이 좀 긴장하신 것 같았는데, 몇몇 아이들이 선생님을 놀리기도 했어요.”

“선생님들도 긴장하실 때가 있단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싱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생님을 응원해 드리면 엄마 마음이 뿌듯할 것 같아.”

이튿날, 라일리는 복도에서 몇몇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도 베렛 선생님 수업을 들어. 그런데 어제는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선생님들도 긴장하실 때가 있단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갈라지는 거 들었어? 아, 정말 긴 한 해가 될 거 같아.” 다른 아이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웃음을 터트렸어요.

라일리는 선생님들도 긴장한다고 하신 아빠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제는 베렛 선생님의 첫 출근날이었고, 아마도 꽤 무서우셨을 것 같았어요. 엄마도 선생님을 응원해 드리라고 하셨죠. 라일리가 어떻게 선생님을 응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라일리는 기도할 때 베렛 선생님을 도울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어요.

다음 날, 라일리는 점심 도시락을 열었어요. 그런데 도시락 안에는 엄마의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넌 정말 멋진 아이야!’라고 적혀 있었어요. 라일리는 방긋 웃음을 지었어요. 엄마의 쪽지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라일리네 가족은 이런 쪽지를 ‘행복 쪽지’라고 불러요.

바로 그거예요! 라일리와 반 친구들도 베렛 선생님을 위해 행복 쪽지를 써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라일리는 방과 후에 집에 놀러 오라며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아이들은 밝은 색상의 큰 포스터를 만들고, 웃는 얼굴과 별을 그려서 꾸몄어요. 그리고 베렛 선생님의 어떤 점을 좋아하고 선생님께 배운 것은 무엇인지 적어 넣었어요. 자신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기쁘다는 말도 썼어요.

다음 날, 라일리와 친구들은 일찍 등교했어요. 그리고 베렛 선생님의 교실 문에 포스터를 붙였어요. 아이들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모퉁이에 숨었어요.

곧 베렛 선생님이 교실에 도착하셨어요. “와!” 라일리와

반 친구들은 선생님이 포스터에 적힌 내용을 읽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선생님의 얼굴에 서서히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행복해하시는 선생님을 보니, 라일리도 행복해졌어요. 라일리는 웃으며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누군가 “빨리 베렛 선생님의 수업에 가고 싶어!”라고 말하는 소리가 라일리의 귀에 들렸어요. 라일리도 그 친구와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삽화: 루브라 타베를

